

위기의 한국아동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Korean Children in Crisis and Policy Measures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팀장
양심영 송의여자대학 가족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여성의 사회진출, 가족해체, 성적위주의 풍토, 공교육의 붕괴, 과도한 미디어에의 노출 등의 환경 속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아동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을 고찰하였다. 위기아동을 빈곤아동, 인터넷중독아동, 왕따아동, 학대 및 방임아동, 정서적 결핍아동으로 나누어서 각 유형별 아동규모 및 특성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았다. 우리나라 전체 아동 중 빈곤아동은 15.0%, 잠재적으로 인터넷중독 가능성이 있는 아동 15.0%, 왕따 경험이 있는 아동 24.2%, 행동장애아동 25.7%, 불안장애아동 23.0%, 우울아동 12.2% 등의 분포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아동들은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해체가정 속에서 살면서 빈곤이나 정서적 방임을 경험하거나, 정신건강 면에서 인성교육의 부재로 인해 공격성, 폭력성, 불안, 우울 등을 경험하고 있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 없음을 염두에 두고, 본 고에서는 사회투자 관점으로 빈곤가정 지원, 학교사 회복지사업 강화, 공교육 재정립, 아동복지전달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1. 서론

우리나라 아동은 급격한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편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 교육수준 상승, 개인주의 팽배 등으로 인해서 이혼율이 증가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주체가 되는 가족이 해체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교육의 붕괴와 성적 제일주의 현상으로 인해서 아동에 대한 인성교육이 약화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자녀에 대한 과도한 교육열로 인하여 아동은 어려서부터 각종 학원과 학습지 등 피동적인 교

육을 받고 있고, 교육의 시작이 점차 저연령화하고 있어 아동은 아동기를 잃어가고 있다. 양육환경적으로는 각종 컴퓨터 게임, 음란 저작물 및 영상물 등이 무질서하게 나돌고 있어서 아동들은 어려서부터 성에 노출되는 등 학대와 방임의 상태에 놓여 있다.

아동이 아동답지 못하게 성장되고, 공부로 시달리고 방치되는 속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서비스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한국아동이 전반적인 위협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아동복지정책

은 더 이상 특정한 계층에만 머무르는 잔여적 성격에서 머무를 수 없다. 지금이라도 아동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일반아동을 보호 대상에서 포함하여 아동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한국아동이 처한 사회환경 여건을 살펴본 후, 유형별 위기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동정책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아동이 사회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아동성'을 회복하는데 일조하리라 기대한다.

2.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1) 저출산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한국 아동이 처한 사회적 변화 중 가장 주목하고 보아야 할 첫 번째 상황은 저출산에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률(Total Fertility Rate: TFR)¹⁾의 변화를 보면, 1960년대에는 무려 6.0이던 것이, 가족사업을 힘입어 1984년에는 인구대체율 수준인 2.1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에는 1.47, 2005년에는 1.08이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가 2006년에는 1.13으로 다소 상승되었다(그림 1 참조).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산(그림 2 참

조), 이에 따른 보육시설의 부족, 자녀 양육비의 교육비 상승,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는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향후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적극적인 가족복지정책을 통해서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출산력 제고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저출산시대에는 아동의 수가 적어서 아동은 사회에서 그만큼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아동은 학교성적의 도구화되거나, 저출산과 여성의 사회진출이 맞물리면서 완전히 방치된 채로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에 적대적인 사회환경으로 인해서 줄어들어 가는 아동은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채 사회변화의 희생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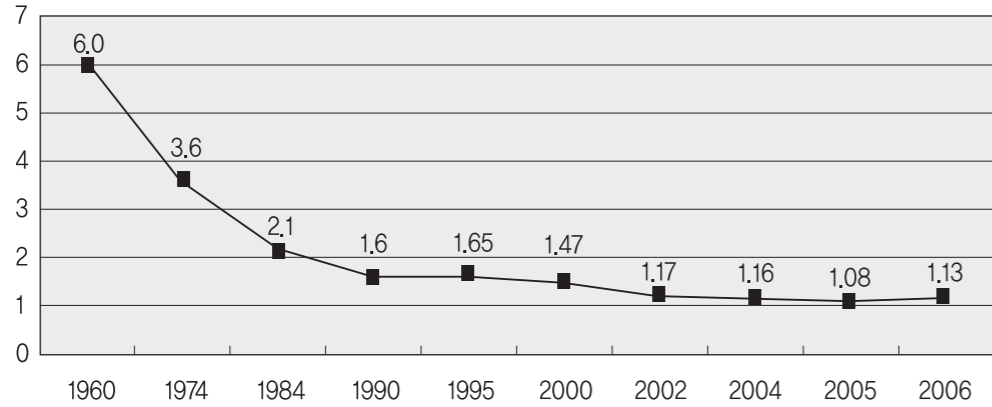
2) 가족해체

(1) 이혼가족의 증가

한국 아동이 처한 사회적 변화 중 두번째로 주목하고 보아야 할 것은 가족해체에 있다. 여성이 경제력을 갖게 되자 결혼은 더 이상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이 되었고, 결혼생활에

1) 합계출산율이란 15세에서 49세 이하의 가임여성이 일생동안 출산하는 평균자녀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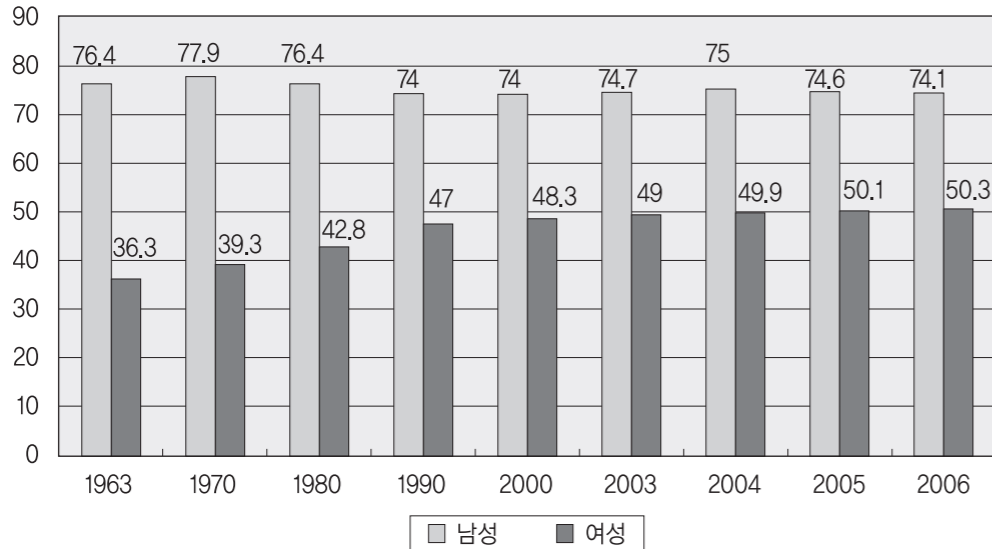
그림 1. 합계출산률 변화추이(1960~2006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그림 2. 성별 경제활동참여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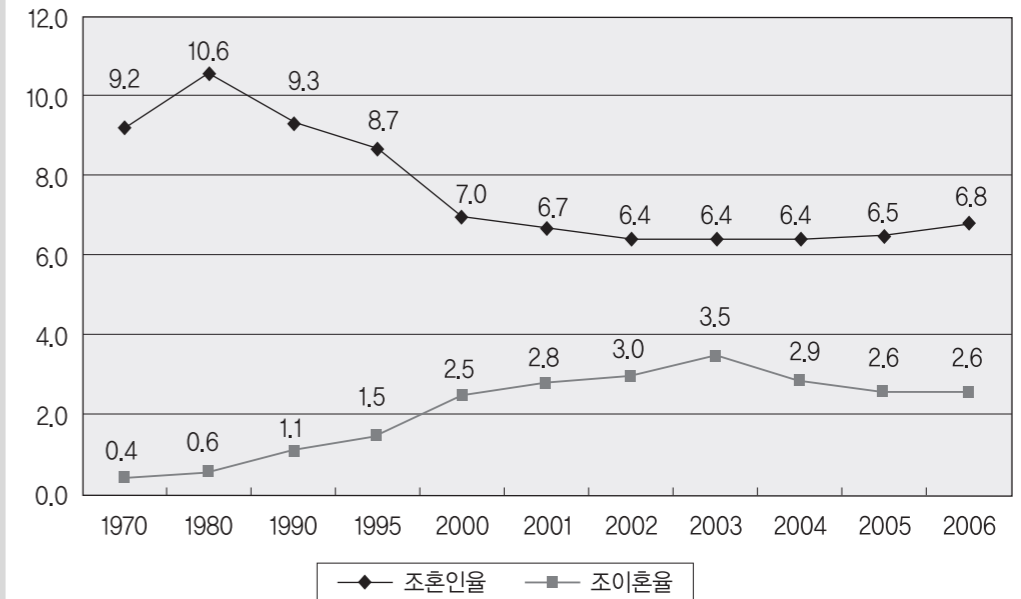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6;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6; 통계청, 『고용동향』, 2006.

불만족했을 때, 이를 참지 않고 과거보다는 쉽게 이혼하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3]에 제시하였듯이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1970년에는 0.4건에 불과하였는데, 2000년에는 2.5건으로 증가하여 지난 30년간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혼율은 2003년에는 3.5건으로 최고조에 다다랐다가 그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2006년 현재 2.6건이다. 이

혼율이 감소한 이유는 일부는 이혼 전에 이혼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주는 이혼숙려제도가 효과를 거두었고,²⁾ 일부는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이혼을 결정하는 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³⁾ 그런데 이혼가구 중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혼이 상당수의 아동에게 정신적 및 경제적 충격을 주게 된다.

그림 3.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단위: 건)



주: 1)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CMR): 1년간 혼인건수/연앙인구×1,000

2)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 CDR): 1년간 이혼건수/연앙인구×1,000

3) 결혼에 대한 이혼율 = (이혼건수/결혼건수)×100

자료: 통계청, 『2005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6. 3.

2)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에 의하면 이혼숙려제도의 도입 이후 이혼율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이를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고, 향후 이혼율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후 제도의 효과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경제불황과 이혼율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기원(2004)은 경제호황기에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경제침체기에는 이혼율이 감소한다고 하였다(정기원, 『사회경제 상황이 이혼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제27권, 제 1호, 2004, pp.57~80).

이혼자는 대개 수 년 이내에 3분의 2가량이 재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재혼 가정이 탄생하여 그 자녀들이 이질성을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게 된다. 즉, 이혼 뿐 아니라 재혼은 아동에게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주게 된다. 이혼 과정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는 기간이 대략 2~3년이고, 재혼가정이 안정을 찾는 데는 그보다 훨씬 긴 5~7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재혼의 과정에서 아동은 또 다른 스트레스와 적응기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2) 한부모 가족의 증가

2006년 현재 한부모가구는 전체 가구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가구 중 배우자가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구는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성별 분포를 보면, 1995년 전체 한부모가구 중에서 남성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7.9%이었으며, 2006년도에는 20.9%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의 공공부조의 대상 한부모가족은 총 12만3,666구, 33만4,066명으로 나타났다(2005년 현재). 이는 전체 가구의 9.0%에 해당된다.

김미숙 외(2000)의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

(모 66.9%, 부 62.8%), 자녀양육문제(모 17.7%, 부 19.3%), 건강문제(모 9.3%, 부 9.2%), 정서문제(정신적 외로움)(모 3.2%, 부 4.3%) 순으로 지적되었다.⁴⁾ 한부모들은 생계를 위해 직업에 전념하며 과중한 역할수행으로 인해 자신이 지칠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자녀를 방치하거나 가정교육이 일관성이 부족하여 부모-자녀관계의 긴장과 갈등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부(父)가 딸을 양육하는 경우는 동일시 할 수 있는 모(母)가 부재함으로 인해, 모가 아들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할 수 있는 부의 부재함으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함을 지적하고 있다.⁵⁾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여성 한부모가족은 이혼 전보다 모-자녀관계가 더 긍정적이고 가까워져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와 비교적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⁶⁾ 반면, 한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와 감독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녀를 방치하게 되어, 청소년 자녀의 경우 부모의 관심이 소홀해지고 행동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약화되면서 가출이나 비행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또한 가족체계가 붕괴됨으로써 자녀들이 두려움과 공격성을 나타내고,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며 아동의 성장에 큰 위기를 겪는다는 연구결과도 보고

되고 있다.

(3) 조손가족의 증가

IMF 전후 급격하게 증가한 이혼, 고용 불안정에 따라 조손가족은 빠른 증가 추세에 있다. '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총 조손가족은 58,101가구로 전체 가구의 0.36%에 불과하나, 지난 10년 동안 65.1%나 증가하였다.⁸⁾

향후 더욱 심화되는 인구고령화와 이혼율의 증가 및 노동시장의 불안 등은 조손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손가족은 가족해체에 따른 경제적 빈곤, 조부모들의 건강상태 악화와 이로 인한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 등 가족 기능 전반에 걸쳐 취약하며 조손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와 연구가 부족하며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3) 학업으로 잃어가는 아동기: 사교육비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르러 성적 제일주의가 만연해 있어, 유아기부터 대학진학전까지 아동들은 학업으로 인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사교육에의 의존도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2007년 현재 국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6천원으로 가구 월소득의 19.2%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⁹⁾ 사교육시장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95%에 이르는 33조 5천억원으로 추정되어, 이는 정부의 공교육예산 총액 31조보다 더 많은 액수로 파악되었다.

자녀 1명에게 지출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1,700원이고, 이를 학력별로 보면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는 20만~40만원, 고등학생은 40~60만원 가량이었다. 사교육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조사대상의 5.58%나 차지하고 있었다.

3. 위기의 한국아동 실태

1) 빈곤아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에 의하면 2003년 최저생계비 이하 아동인구비율인 절대아동 빈곤율은 8.9%이고, 중위소득의 50%이하 아동비율인 상대아동빈곤율은 14.9%이다(그림 4 참조). 이를 아동인구수로 환산하면 2003년 현재 절대빈곤아동수는 1,016,421명이고, 상대빈곤아동수는 1,701,649명이다.

아동의 빈곤으로 교육기회의 감소, 인지능력 저하, 건강상태 저하, 심리사회적 위축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문제

4) 김미숙 외,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5) 김미숙 외,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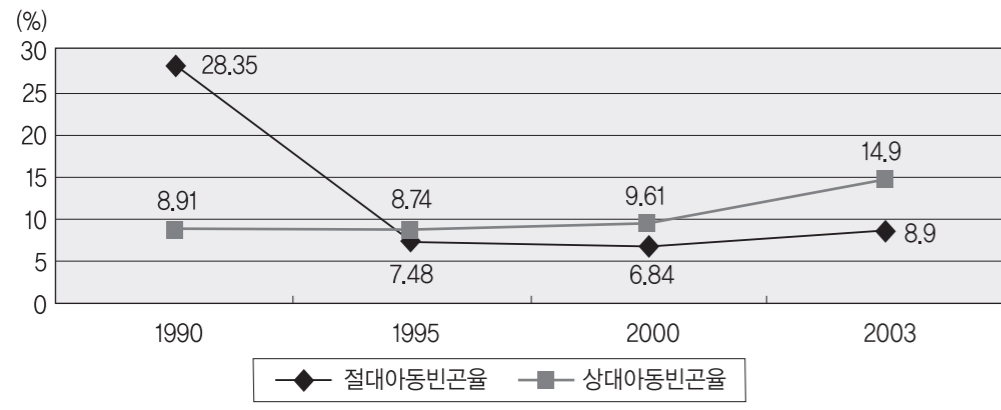
6) 이소영·옥선화, 「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 지각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대한가정학회지』, Vol40, No.7, 2002, pp.53~68; 장혜경 외,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여성부, 2001.

7) 조성연, 「여성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22, No. 1, 2004, pp.153~167.

8) 35,194가구('95년) → 45,224가구('00년) → 58,101가구('05년)

9) 현대경제연구원, 「사교육, 노후불안의 주된 원인-사교육 실태조사 및 시장규모 추정」, 『한국경제주평』, 67-15(통권 246호), 2007. 4. 27.

그림 4.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추이



주: 1990년~2000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사용(아동: 0~19세, 농어가가 누락)
 2003년: 「2004년 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 사용(아동: 18세 미만, 농어가 포함).
 아동빈곤율(18세 미만) = 빈곤아동수/전체아동수 × 100

는 성인기에까지 이어져서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위험이 높다.

기존의 주요 연구에 의하면 아동빈곤의 원인은 아동이 속한 가구의 빈곤 원인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구인회(2002)에 의하면 빈곤아동가구는 노동시장에서 인적자본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¹⁰⁾ 아울러 저학력, 많은 가구원수, 6세 미만 아동의 존재 등으로 배우자 취업이 어려워 빈곤가구로 전락함을 발견하였다.

황덕순(2002)은 빈곤가구는 고연령, 여성가구주, 중고졸, 배우자와 동거, 가구주가 무직이거나 분류불능인 직종에 종사, 판매서비스직이

나 기능직, 큰 가구규모, 가구내의 적은 취업자수와 같은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¹¹⁾ 즉, 파트타임 근로의 증가, 소득격차의 증가는 아동빈곤을 증가시키고, 가족내의 1인 소득자 혹은 저임금은 아동빈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가족구조와 관련해서는 편모가구(양육비용, 주거비용 부담이 크고, 보육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동빈곤 가능성이 큼)의 경우가 빈곤할 확률이 높았다(미국: 양부모 가구의 아동빈곤율: 11%, 편부모가구: 60%).¹²⁾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 빈곤아동정책은 수급자 이상의 계층에까지 적용되는 지원정책은 보육서비스 정책이외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아울

10) 구인회,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8권, 2002, pp.82~12.
 11) 황덕순,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정진호 외(편),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2, pp.88~124.
 12) Rainwater, L & Smeeding, T.M., "Doing poorly : The real income of American children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LIS working papers, No. 127, 1995.

러 수급자의 경우도 아동을 위한 적절한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수급자가 아닌 계층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2) 인터넷중독 아동

통계청의 청소년통계자료에서 청소년 고민 및 상담문제와 관련, 인터넷이 그다지 확산되지 않았던 지난 1998년은 인터넷중독에 대한 고민이 없었지만 급속히 확산된 2002년에는 15~19세 청소년들의 고민사항 8위에 인터넷중독이 올랐다.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 실시된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1000만여 명의 청소년 중 3%인 30여만 명이 치료가 필요한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15%에 해당하는 150여만 명이 기본적인 단계의 상담이 필요한 잠재적 위험군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2006)이 지난해 조사한 청소년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조사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2002년말 91.3%에서 2006년말 98.8%로 경증 뛰어올라 인터넷중독 대상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작년 기준으로 청소년들의 주당 평균 컴퓨터 이용도는 15~19세가 14시간, 20~24세는 19.3시간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셈이다. 휴대전화 이용률은 15~19세가 85.3%, 20~24세는 무려 97.3%, 1일

평균 문자 메시지 이용 건수는 9.08건으로 나타났다.¹³⁾

PC방이 집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종일 인터넷 게임과 채팅에 매달리는가 하면 컴퓨터와 휴대전화 없이는 불안해하는 청소년들이 수도룩하다. 자연히 공부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가족과 친구와도 멀어지기 십상이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2002년 조사때보다 연령군에 따라 7~8%포인트 정도씩 낮아진 것이 이를 말해준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인터넷 중독 치료를 받은 청소년 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청소년 중 65%가 가출 경험을 했고, 친구가 단 1명도 없다는 경우도 70%를 넘었다. 이중 주의력 결핍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은 경우도 86.4%나 되었다.

3) 왕따 아동

왕따란 반복적으로 집단의 힘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따돌림을 말한다. 우리나라 57개 초·중·고교 6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략 4명중 1명 꼴인 24.2%가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된다. 실제 아이들에게 심각한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주일에 1번 이상의 빈도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는 대략 2~4%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왕따 문제는 대략 유치원시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1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청소년의 휴대전화사용실태조사」, 2005.

로 되어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www.chest.or.kr)가 2006년 4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생활환경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아동들이 왕따를 당한 이유는 '성격이 활발하지 못해서(15.3%)', '성격이 내성적이어서(15.3%)', '힘이 약해서(14.9%)', '집이 가난해서(9.5%)'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10명 중 2명이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의 21.4%가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20.5%는 학교 교사로부터 차별 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왕따를 경험한 아이들은 의기소침, 자신감 저하, 불안정감, 우울, 불안, 외로움, 불행감, 신체증상 등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며 왕따를 당하는 기간과 강도가 센 경우, 자살충동, 심각한 우울증, 대인공포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경험할 수 있다.

4) 학대·방임 아동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05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 학대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방임'이다. 무려 전체 학대 유형

중 36.4%를 차지한다. 지난 해 전국 아동기관으로 접수된 학대 신고 4,633건 중 방임은 2,416건(중복학대 포함)이나 된다. 방임은 어린이 학대의 대표적 유형이지만 신체 학대나 성학대 등 직접적인 폭력에 비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아 왔다.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학대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임과 정서학대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방임은 맞벌이 부부 가정이나 빈곤층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반면 다른 학대에 비해 느끼는 심각성이 약한 편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6)이 발간한 「2006년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전국 43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8,903건으로 2005년 대비 11.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돼 정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를 받는 학대아동 보호건수는 5,20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2.3% 늘었다.

학대유형 가운데 방임이 2,035(39.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중복학대(34.6%), 정서학대(11.6%), 신체학대(8.4%), 성학대(4.8%), 유기(1.5%) 순이었다. 신체학대는 2001년 41.8%에서 지난해 24.9%로 상당히 감소했고 정서학대는 9.0%에서 29.8%로 증가추세가 뚜렷하다.

지난 6년 동안의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변화추이를 분석해 보면 방임과 중복학대가 매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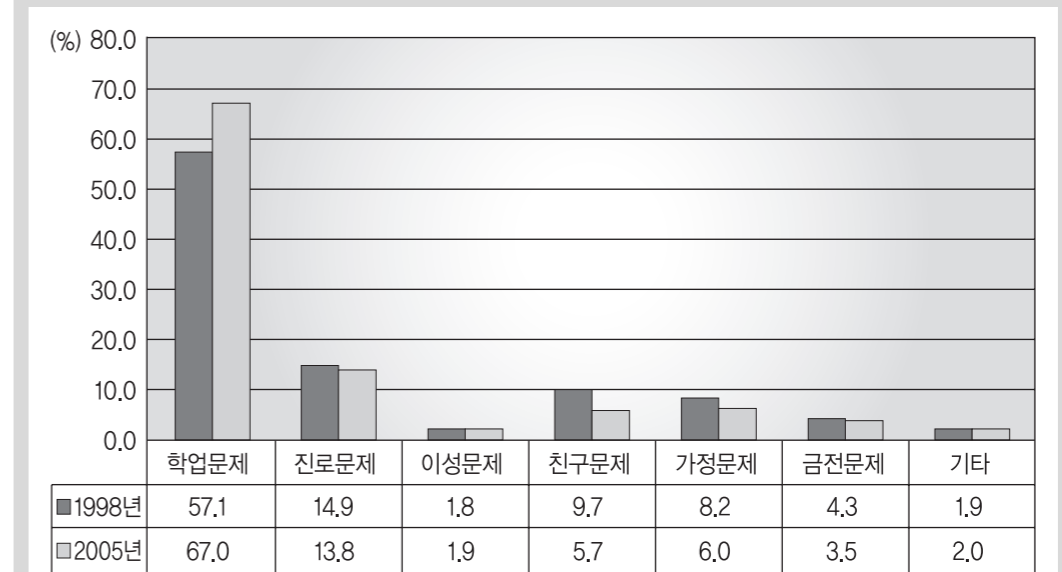
임의 경우 전체 보호건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방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가정해체 증가 등으로 인한 양육환경의 변화, 사회의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빈곤계층의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아동방임은 빈곤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방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고위험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지원이 중요하다

5) 정서적 결핍 아동

우리나라 아동의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정서적인 결핍을 포함한 정신문제가 있다. 인성교육없이 공부만을 강조하는 사회 풍토 속에서 아동들은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서 이로 인해 정신장애까지 이르고, 해소되지 못한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을 닫게하거나 폭력성으로 이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의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수준 및 보건의식 행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동 및 청소년 스트레스의 제일 원인은 '학업문제' (67.0%)로 꼽혔고, 이어 진로문제(13.8%), 가정문제(6.0%), 친구문제(5.7%)의 순

그림 5. 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1998년, 2005년): 12~18세



주: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 '조금 느끼는 편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수준 및 보건의식 행태, 2006.

이었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이유는 학업, 가정문제, 이성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학업문제가 한국 아동을 짓누르는 최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학교보건진흥원(2005)이 6~17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생 4명 중 1명은 행동장애(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나 불안장애(특정공포증, 사회공포증, 분리불안장애, 강박증, 광장공포증)를 갖고 있었다. 조사대상 아동의 16%는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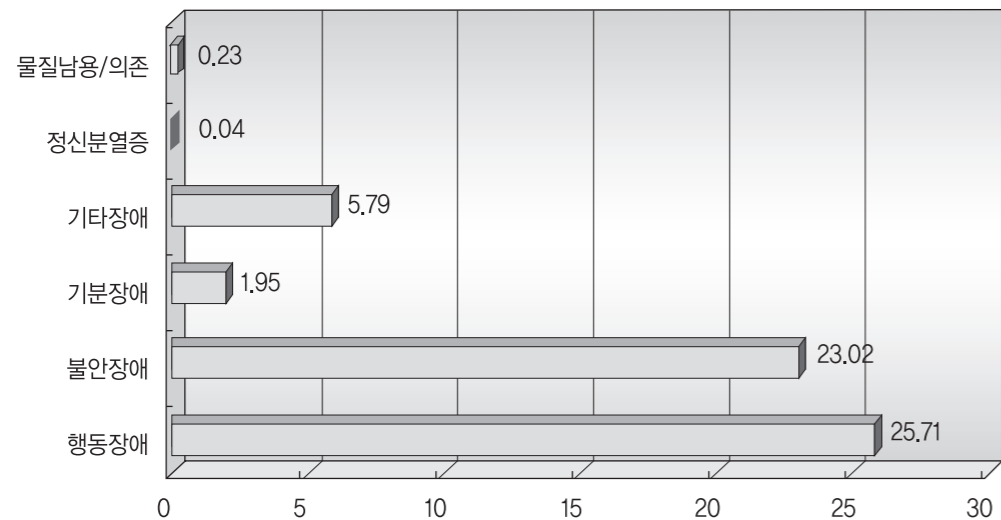
장애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업에 대한 아동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정신 질환의 원인이 된다. 학원밀집지역에는 소아청소년정신과나 학습치료 클리닉이 블록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이어서 아동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아동의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못한 채, 내재화되면 우울증이 생기거나 은둔같은 반사회적인 행동인 대인기피증을 초래하게 되고, 외재화 되면 공격적인 행동, 사회를 향한 적개심, 폭력성 등을 보이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지난 1년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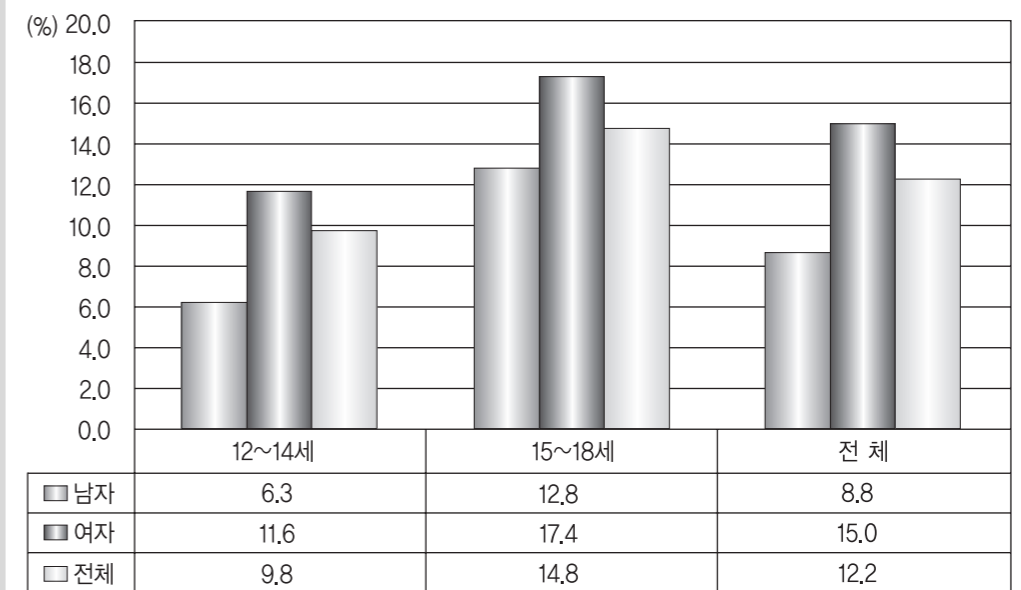
그림 6. 아동·청소년의 정신장애별 분포

(단위: %)



주: 행동장애 - ADHD,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불안장애 - 특정공포증, 사회공포증, 분리불안장애, 강박증, 광장공포증
 기분장애: 조증/경조증, 주요우울장애
 기타장애: 틱장애, 아간형 유노증
 자료: 서울대학교보건진흥원,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 조사」, 2005.

그림 7. 청소년의 연간 우울감 경험률: 성별, 연령별, 12~18세



주: 우울감 경험자: 지난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수준 및 보건위식 행태」, 2006.

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청소년은 12.2%로 나타났다. 우울감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높은 연령대에서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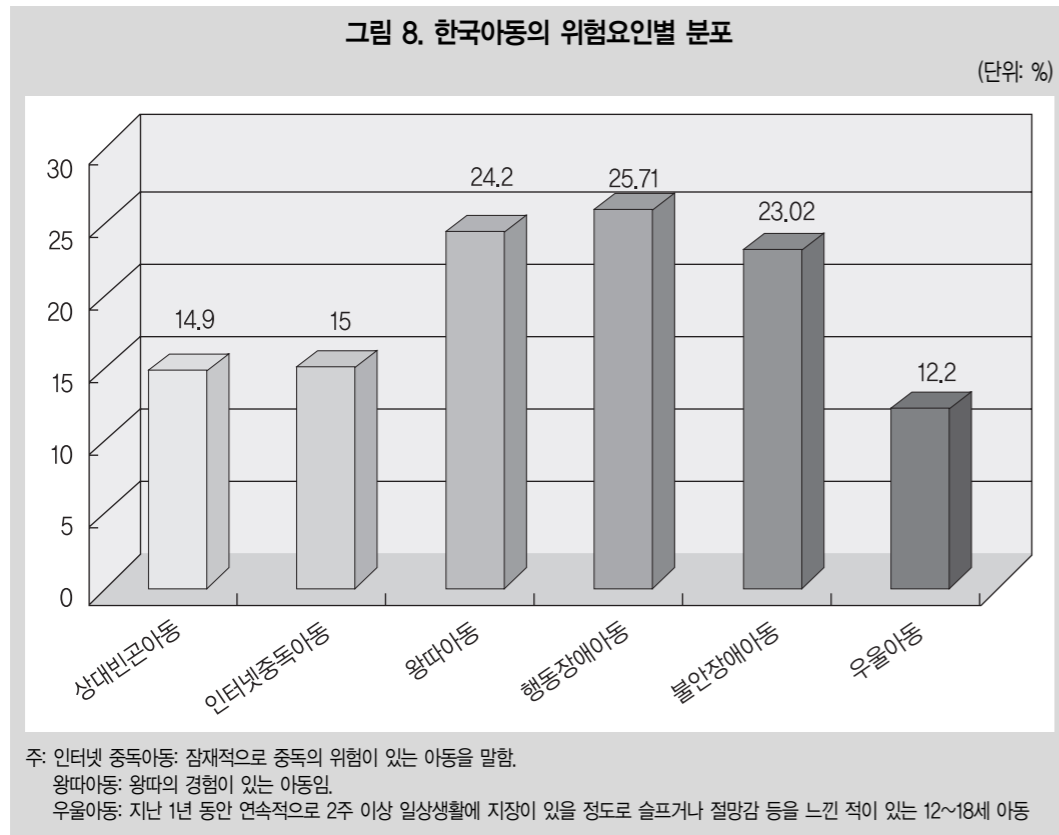
리 사회의 미래이므로 아동의 위기는 곧 사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위기에 처한 아동에 대한 대책마련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응방안을 고찰하였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복지 강화

4. 위기아동에 대한 대응전략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있는 한국아동의 유형별 분포는 [그림 8]과 같다. 유형별로 보았을 때 전체 아동의 10%에서 25% 사이에 아동들은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동은 우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설중심의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하여 재가아동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날 아동복지의 대상은 모든 아동이며, 아동은 책임을 다하



는 부모와 안정된 가정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아동양육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이 가정을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불가피하게 가정이 없을 때는 지역사회 중심의 대안적 형태의 가정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출생가정이나 대리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가족과 아동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관련 전담인력이 배치되

어야 하는데, 특히 아동상담 및 정신장애 치료 전문가의 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용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아동 및 가족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2) 아동복지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

아동복지전달체계의 조직과 기능이 개선되어 효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동복지전달체계는 공적서비스체계와 민간서비스체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중앙정부부터 지방에 이르기

까지 공적서비스전달체계가 효과적인 아동복지를 위한 정책서비스 전달체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주무부서는 분산되어 있어서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들고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부처간의 연계기능을 향상하거나 업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정부부처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상설적인 중앙기구의 설립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간의 역할 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 간에 협력관계 속에서 발전해야 한다.

공공이어야 하는 아동복지 분야가 지나치게 민간의 책임으로 전가되거나 민간분야의 자율성이 공공에 의해 통제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안 될 것이다.

3) 빈곤가정 지원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은 아동이 속한 가정에 대한 지원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동시장정책, 가족정책,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갖춘 국가일수록 편부모가구의 빈곤가능성이 낮았다. 우

선, 복지정책은(소득보장정책, 보육서비스 등) 아동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여기에는 공공부조, 아동수당, tax credit 등의 현금급여; 보육, 교육, 의료, 주택 등의 현물급여가 포함된다. 한편, Bradbury와 Jantti(2001)는 아동빈곤에 효과적인 것은 시장소득이라고 하였다.¹⁴⁾ 즉, 노동시장 정책과 가족정책이 아동빈곤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산조사에 의한 급여보다 보편적이고 노동연계적인 급여가 아동빈곤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추가 근로소득에 대한 급여감소가 없고,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 등 노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부가적인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아동빈곤율이 낮다. Oxley et al.(2001)는 근로소득 증가 이외에 아동 관련 급여 및 서비스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¹⁵⁾ 스웨덴에서도 편부모 가구의 고용률이 높고, 현금급여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과 같은 서비스 급여가 발달되어 있어 아동 빈곤율이 낮다. 반면 미국의 경우 아동수당과 아동양육비의 부재로 아동빈곤율이 높은 실정이다.

종합하면, 아동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정책과 가족정책이 동시에 제공되고, 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수당이 필요하며, 대상을

14) Bradbury, B., and M. Jantti, "Child Poverty across the Industrialized World: Evidence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in K. Vleminckx and T. M. Smeeding (eds),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 Bristol, U.K.: The Policy Press, 2001.

15) Oxley, H., Dang, T., Forster, M. F. & Pellizzari, M., "Income Inequalities and Poverty among Children and Households with Children in Selected OECD Countries,"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 Bristol, U.K.: The Policy Press, 2001.

한정한 급여의 경우는 급여액이 충분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육아휴직 등과 같은 현물서비스의 발달도 중요하다.

4) 학교사회복지사업의 강화 및 공교육 재정립

폭력, 왕따 등의 아동 문제는 학교환경과 밀접하다.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는 전인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수행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학교는 학생들의 지적능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이외에도 심리,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지도와 학생복지에도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다. 학교사회사업을 통하여 학교 내 교육 또는 학습의 과정에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잠재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아동과 가정, 지역사회 환경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학교는 아동에게 중요하면서도 친숙한 사회적 환경이다. 학교를 통해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에게 큰 스티그마를 주지 않고 제공될 수 있고, 아동을 잘 알고 있는 교사나 카운슬러 또는 다른 교직원 및 학부모와 접근이 가장 용이한 장소이다.¹⁶⁾ 아동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아동들을 이해하고 교수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따라서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확대되어, 위기에 처한 아동을 지원하고 나아가서 위기에 처할 아동을 미리 예방하는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성적위주의 사회 풍토가 바뀌고, 공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과도한 교육열이 건전한 방향으로 바뀌고, 사교육에 의존하여 인성교육과 정서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공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아동과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나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아동정신건강 체계 확충

인터넷중독아동, 방입아동, 왕따아동, 정서장애아동 등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아동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보건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 및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정신문제를 의뢰하도록 한다. 정부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일부 아동의 이상 심리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격성과 폭력성 등이 보편화된 아동문화의 일부임을 인식하여 아동들이 아동다와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동정

신관련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과 재정적 지원 및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 결 어

저출산 시대에 아니러니 하게도 한국아동은 모든 측면에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빈곤한 아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당혹하게 만든다. 선진제국에서는 최근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바꾸어 ‘사회투자’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인생의 출발부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초기부터의 투자를 통해서 사회가 생산적인 되

고 건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아동 개인으로 보나 사회 전체로 볼 때,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인 위협들을 전면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있다. 각종 위협으로 인해 손상된 아동들이 성장한 사회는 건강할 수 없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겠고, 사회가 아동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구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아동전문가들이 많이 양산되어 유기적으로 아동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아동이 곧 우리의 미래이기에 이러한 작업들에 올인해야 할 것이다. 문헌

16) 강희경, 「방입아동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실천 사례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9호, 2000, pp.51~66.